

# LED·광산업 등 100여개 업체 수출길 모색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광주 어떤 업체 참여하나

### 허머·티앤아이·엠플소프트·바이오스타... 지역특화 기술력 갖춰 수출 '러브콜' 기대

‘전 세계 한상(韓商)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광주의 기업은?’

29일부터 31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에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광주 지역 중소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광주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광주시 특별산업전시관이 마련

리거 제작 업체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개발한다. 벤처기업, 광주시 유망중소기업, 글로벌 지적재산(IP) 스타기업 등에 선정되기도 한 허머는 고유의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국내 및 해외 수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LED 식물재배기 및 가시광선 투과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특화 기술 산업체 100여개가 참여한다. 한상의 ‘눈에 들면’ 당장 새로운 해외수출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허머는 세계 최초의 치과용 의치 제조 보조기기와 가정용 음식물 처

간편한 식물 재배를 가능하게 한다. LED를 이용한 도로조명과 교통신호등을 만드는 ㈜포에프는 지능형 교통통제시스템과 경관조명을 등기구, LED 응용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미국 ITE 인증 및 유럽 CE 인증을 획득하는 등 제품의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교통신호등을 칠레, 태국, 필리핀, 남아공 등 해외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어학습용 프로그램 및 스마트러닝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엠플소프트는 ‘아이유스터디’는 세계 15개국 언어로 실행할 수 있

으며 초급, 중급, 고급 레벨로 분류돼 외국인이 쉽게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엑셀이나 대용량 자료를 바로 스마트러닝 콘텐츠로 만들 수 있어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 품목이다.

바이오스타는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국내시장 물론, 세계시장 도전에 나서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그린라이프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허브찜질팩 등 다양한 허브관련 힐링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 주간 증시 포커스 외국인 매수 지속 IT·통신주 관심을

지난 주말 기관의 매도공세에도 40여일간 지속되던 외국인 순매수기조가 소폭 순매도로 전환하며 주간기준 인지 여부에 투자자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3분기 실적발표가 본격화되는 이번 주 화·수요일에 열리는 미국 FOMC 회의결과에 따른 양적완화 언급과 미국·중국의 제조경기 지표의 발표는 주가변동을 가져올 만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미국 FRB의 양적완화 정책의 축소에 대해 살펴보면 이번 주 열리는 미국 FOMC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 개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는 미 연방정부 일시폐쇄의 영향으로 공무원의 일시적인 해고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되었고 정부 재정지출이 막힘에 따라 미국 경기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연준의 출구전략이 늦춰짐에 따라 최소한 연말까지 국내증시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양적완화 축소 지연에 따른 원화강세도 나타나고 있으나 환율의 영향이 외국 순매수기조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시작한 7월 이후 원·달러 환율의 변화에 따라 외국

## 광주상의 “광주 세계한상대회 성공 앞장”

광주상공회의소는 27일 호남권 최초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를 위해 기업전시회 광주특별산업전시관 참여업체 지원과 4개 주요 한상단체 업무협약 체결, 대표 한상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개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제11차 세계한상대회 기간 동안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캐나다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원들을 조찬 간담회에 초청, 상의 회원사 대표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은 “세계한상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광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역 경제는 한상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수출계약 체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상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광주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



금호가족 문화예술제 수상자  
지난 26일 광주 유·스퀘어에서 열린 제3회 금호가족 문화예술제 시상식에서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과 예술제에 입상한 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고속은 지난날 순천정원박물관에서 자연, 친절한 서비스, 가족과의 추억 등을 주제로 임직원 및 가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예술제를 진행했다. <금호고속 제공>

## 농공상 우수제품 특판전 광주·전남 참가기업 모집

관세청의 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에서 최근 5년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짜퐁’ 브랜드는 ‘루이뷔통’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은 27일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적발된 가짜 루이뷔통 제품은 총 616점으로 정품가격 환산시 4875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적발건수를 기준으로는 구제 516건, 샤넬 508건, 버버리 434건, 프라다 288건이 루이뷔통의 뒤를 이었다. 프라다 2067억원, 까르띠에 2064억원, 샤넬 1884억원, 롤렉스 1798억원의 순위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금액 기준 1조805억원 어치가 적발된 가방류에 이어 시계류 9051억원, 의류 5862억원 순으로 적발됐다. /연합뉴스

## 호남지역 건설현장 산재사고 급증

매년 200건 이상씩 늘어  
호남지역 건설현장에서 해마다 200여건 이상 산업재해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노동청의 관할지역(광주·전주·익산·군산·목포·여수·제주청)내 건설산재로 말미암은 재해자 수가 해마다 200여명 이상 급증하고 있다.

재해자 수는 지난 2010년 3165명(사망자 82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3392명(사망자 83명)으로 늘었고, 2012년에도 3655명(사망자 100명)으로 증가했다. 재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수까지 늘었지만 매년 산업재해 처벌은 상당수가 내사종결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건설산재 조사가 진행 중인 30건을 제외하고 노동청이 조사한 323건 중 3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검찰 기소 없이 내사종결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인 순매수 업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환율이 1100원대에서 IT, 자동차, 조선주 등에 집중됐고 1,080원대에는 환율 하락에 덜 민감한 IT, 통신주 등을 매수했다. 특히 원화가치의 강세 쪽이 커지면서 음식료 등 내수주 및 소비관련주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외국인 매수의 근거는 미국, 유럽, 중국 경기회복 기대 및 한국 경제의 건설성장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회복을 기반으로 한 환율 변동에 따른 외국인의 매수 패턴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주 외국인의 매수규모 축소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경기회복 기대를 근거로 한 시장주세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주는 미 양적완화 축소 지연에 따른 유동성회색과 미국·중국 등 경기회복추세의 긍정적인 영향속에 급하게 올라온 지수에 대한 부담과 미국 FOMC회의에 대한 관망, 악화된 국내기업의 실적부담 등으로 등락폭이 예상된다.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IT, 통신,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 기아차 ‘2014년형 올 뉴 카렌스’ 출시 옵션 줄여 모델별 가격 최고 225만원 인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미니밴 ‘올 뉴 카렌스’가 합리적 가격과 탁월한 경제성을 무기로 새 탄생한다.

최대 225만원의 가격인하 및 등급 최고 연비를 구현한 친환경 ‘에코 다이내믹스’ 모델이 추가된 ‘2014 올 뉴 카렌스’는 28일부터 고객과 만난다.

미니밴 특성상 고급 편의사양보다 경제성에 민감한 고객을 위해 인기 없는 옵션을 과감히 없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 이에 따라 모델별로 135만원에서 225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LPI 및 디젤의 최고급 모델인 ‘노블레스’의 경우 고급형 오디오, 동승석 통풍시트 등 일부 사양을 제외하는 대신 각각 220만원, 225만원의 가격을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3 6 13 23 24 35	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 일치	3,467,925,188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4,220,837	36
3 5개 숫자 일치	1,355,188	1,706
4 4개 숫자 일치	50,000	81,582
5 3개 숫자 일치	5,000	1,329,250

# 제17회 장성 백양 단풍축제

백암산 매기단풍의 노·색·향·미

2013. 11. 1(금) ~ 3(일) 3일간  
국립공원 백암산·백양사 일원

주최 및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 후원 Jangseong | 전라남도 | 한국관광공사